

RENDEZ-VOUS / DE LA MUSIQUE FESTIVAL 2023



LIFT: 비상 飛上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2023

2023. 9. 5, 9, 12-13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주최 stageone 김혜진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SAMSUNG

LS ELECTRIC

조선일보

STEINWAY & SONS

코스모스악기

50 **ENABLE**
THE CHANGE

자연과 에너지의 아름다운 공존 LS ELECTRIC의 ESG경영이 만들어 갑니다

푸른 자연과 에너지 산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
LS ELECTRIC이 바뀌 놓았습니다.

스마트팩토리에서 신재생에너지까지
LS ELECTRIC은 ESG 경영으로 앞서갑니다.



LS **ELECTRIC**

COSMOS
SINCE 1972



STEINWAY & SONS

SPIRIO

세계 유명 피아니스트들의 연주를
우리 집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피아노

Steinway.kr 에서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CHOPIN  CHAMPAGNE

언제나 집안에서 즐길 수 있는 명품 콘서트 - 스타인웨이 스피리오.
iPad와 연동하여 스타인웨이 피아노의 연주를 무료로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36개월 할부 가능**

[주]코스모스악기
스타인웨이 갤러리 서울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5 TEL (02)3486-0012
자세한 정보는 STEINWAY.KR 을 방문하세요.



STEINWAY & SONS

GREETINGS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혜진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상쾌한 가을의 속삭임과 함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개최되는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의 주제는
<LIFT ; 비상:飛上> 입니다.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담긴 주제 <비상>은 제 자신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기약없는 어둠, 걱정과 두려움, 무료한 반복 속에서도 곳곳이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비상>하는 세상을 꿈꾸며, 이번 페스티벌을 준비하였습니다.

총 네 회의 공연으로 구성된 이번 페스티벌은 세대의 폭을 아우르는 출중한 연주자들과 확장된 편성으로 새로운 조화를 이루는 화합의 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올 해 처음 선보이게 될 관악 5중주 및 8중주 편성과 총 32명의 연주자 라인업, 국내 초연 작품들을 비롯한 참신한 레퍼토리로 한 걸음 <비상>하는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을 통해 여러분들께 유일무이한 '음악적 랑데뷰'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도록 정성과 후원으로 함께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음악을 통해 조금 더 친밀하게, 조금 더 특별한 만남의 장이 되는 페스티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5.

랑데뷰 드 라 무지크 페스티벌 예술감독
김혜진

Dear Rendezvous friends,

Leaving behind the scorching summer, we are eagerly anticipating your presence at the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2023, coinciding with the refreshing onset of autumn. I am profoundly thankful to welcome back many familiar faces and to embrace new ones.

This year, the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carries the theme
<LIFT ; 비상:飛上>.

The concept of <LIFT> exudes positivity and hope, embodying a message I intend to convey to myself as well. Our preparations for this festival have been nurtured by the vision of a world where we can elevate ; <LIFT> our spirits through daily gratitude, transcending the persistent shadows, worries, and monotony that pervade our lives.

Spanning across four performances, this festival promises an innovative and harmonious stage adorned with exceptional musicians from across generations and an expanded instrumentation. From the wind quintet to the Schubert octet, a grand assembly of 32 musicians will grace the stage, including the debut of two premier works. It is my fervent hope that this Festival will facilitate a distinctive 'musical rendezvous', offering you an unparalleled experience.

I extend heartfelt gratitude to all those who have tirelessly contributed and supported the festival's journey. May this event evolve into a sanctuary where we share our narratives more intimately, woven through the threads of music. Your unwavering support and affection for the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are invaluable and deeply cherished.

Thank you.

September. 5. 2023

HyeJin Kim

Artistic Director of 'The Rendezvous de la Musique Festival'

OPENING CONCERT

랑데뷰 살롱 Rendez-vous Salon

9. 5. TUE. 7:30PM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생 조르주

Joseph Bologne, Chevalier de Saint Georges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b장조 (8분)

Sonata for Two Violins in B^b Major

I. untitled

II. Aria con Variatione

Vn. 김유은, 임동민

알반 베르크

Alban Berg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 (12분)

'Adagio'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Vn. 정주은, Cl. 채재일, Pf. 김혜진

요제프 하이든

Joseph Haydn

피아노 트리오 C장조, Hob:XV27 (17분)

Piano Trio in C Major, Hob:XV27

I. Allegro

II. Andante

III. Finale. Presto

Pf. 김혜진, Vn. 김유은, Vc. 정우찬

INTERMISSION

사무엘 바버

Samuel Barber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여름 음악', Op.31 (12분)

Summer Music for Flute, Oboe, Clarinet, Bassoon and Horn, Op.31

Fl. 박예람, Ob. 윤성영, Cl. 채재일, Bn. 이민호, Hn. 김홍박

로베르트 슈만

Robert Schumann

피아노 오중주 E^b장조, Op.44 (30분)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I. Allegro brillante

II. In modo d'una marcia. Un poco largamen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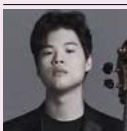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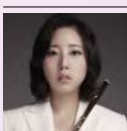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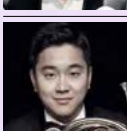
III. Scherzo. Molto vivace

IV. Allegro ma non troppo

Pf. 손정범, 이든 콰르텟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손정범	· ARD 국제 음악 콩쿠르 우승 · 경희대학교 교수
	바이올린 김유은	· 델리리움 무지쿰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2023년 워너클래식과 음반 발매 · 무지카 안젤리카 바로크 오케스트라 상주음악가, 세인트 매튜 오케스트라 악장(Los Angeles)
	바이올린 정주은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 이든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임동민	·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KBS 한전음악콩쿠르 대상 · 이든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첼로 정우찬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쾨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 이든 콰르텟 첼리스트
	플룻 박예람	· 프랑스 생모 음악원 교수 · 벨기에 라 모네 왕립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오보에 윤성영	· 프라하 국제콩쿠르 공동 2위 ·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석사과정 졸업 및 악기수여, 르와르 국립 오케스트라 수석 단원
	클라리넷 채재일	· 프랑스 뷔페 크람퐁(Buffet Crampon)클라리넷 아티스트, 반도린(Vandoren) 아티스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바순 이민호	· 독일 마크노이키르헨 콩쿠르, 스위스 무리 콩쿠르 심사위원 ·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호른 김홍박	· 고잉홈 프로젝트 이사, 앙상블 오푸스, 클럽M, Korean Horn Sound 멤버 · 서울대학교 교수
	이든 콰르텟	· ARD 국제콩쿠르 세미파이널 리스트 · 2023 모차르트 국제콩쿠르 3위

PROGRAM NOTES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생 조르주 1745~1799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 B^b장조**
Joseph Bologne, Chevalier de Saint Georges **Sonata for Two Violins in B^b Major**

조셉 볼로뉴, 슈발리에 드 생 조르주는 프랑스의 작곡가이자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였다. 또한 뛰어난 검객이자 군인, 만능 스포츠맨이었으나 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흑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서인도제도 과들루프에서 노예 출신으로 태어났으나 지주였던 아버지의 배려로 훌륭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는 훗날 마리 앙투아네트의 음악교사가 되었고, 생전에는 동시대인인 모차르트보다 훨씬 높은 명성을 누렸다. 따라서 종종 그렇듯이 그를 '검은 모차르트'라 부르는 것은 두 음악가 모두에게 부당한 처사이다. 그는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를 6곡 썼는데, 이 가운데 B^b 장조로 되어 있는 곡은 '1번'과 '5번'이며 이번에 연주하는 곡은 후자이다. 1악장에는 악상 지시가 없기 때문에 연주자가 재량껏 연주하게 되어 있지만, 밝고 명랑한 악상의 성격을 감안해 알레그로로 연주하는 게 통례이다. 한편 2악장은 우아한 주제(아리아)에 기초한 변주곡이다.

알반 베르크 1885~1935 **바이올린,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
Alban Berg **Adagio for Violin, Clarinet and Piano**

알반 베르크는 스승인 아르놀트 쇤베르크 및 동료인 안톤 베베른과 함께 신 빈악파를 형성한 작곡가이다. 그는 스승이 제시한 음렬음악을 추구하면서도 화성 진행을 통해 조성적인 느낌을 부여하고자 애썼으며, 이 때문에 한때 타협적이라는 비판도 받았으나 오늘날에는 그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1923~1925년에 쓴 '실내 협주곡'도 이런 작품 중 하나이다. 이 곡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및 13대의 관악기로 편성되어 있으며, 전체 3악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곡가는 1935년에 이 작품의 2악장만 따로 떼어내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해 편곡했는데 이것이 이번 공연에서 연주하는 '아다지오'이다. 이 곡은 일종의 거대한 회문(앞부터 읽으나 뒤부터 읽으나 똑같은 말)으로, 후반부에 등장하는 음렬은 전반부를 지배했던 음렬의 역행형이다. 짙막한 피아노 독주가 전반부에서 후반부로 넘어가는 전환점 역할을 한다.

요제프 하이든 1732~1809 **피아노 삼중주 C장조, Hob:XV27**
Joseph Haydn **Piano Trio in C Major, Hob:XV27**

'피아노 삼중주 C장조'는 하이든이 마지막으로 쓴 피아노 삼중주 중 하나이다. 그가 이 곡에 착수한 것은 그의 두 번째 런던 방문 기간이었던 1795년으로 추정되며, 그는 이듬해에 빈으로 돌아간 이후 이 곡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이든은 '삼중주 27~29번'을 '바이올린과 첼로 반주가 붙은 피아노포르테를 위한 소나타'라는 명칭으로 출판했는데, 당시에 이런 편성에서는 피아노의 비중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1악장은 소나타 형식을 취하며, 팡파르 풍의 음형으로 시작한다. 1주제는 비교적 서정적인 반면 2주제는 활기차다. 2악장 첫머리의 절제된 분위기는 하이든이 이 곡을 상류층 가정에서 사적으로 연주할 것을 염두에 두고 썼음을 말해준다. 곧 한층 격렬하게 요동치는 에피소드가 나오지만, 작곡가는 그야말로 고전주의적인 태도로 두 분위기의 균형을 맞춘다. 3악장은 피아노가 주도하는 가운데 시종일관 활기차게 진행되는 론도이다.

사무엘 바버 1910~1981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을 위한 '여름 음악', Op.31**
Samuel Barber **Summer Music for Flute, Oboe, Clarinet, Bassoon and Horn, Op.31**

사무엘 바버는 20세기 작곡가로는 보기 드물게 뛰어난 선율적 재능을 지녔으며, 유명한 '현을 위한 아다지오' 외에도 듣기 쉽고 서정적인 작품을 다수 작곡했다. '여름 음악'은 그가 관악 앙상블을 위해 쓴 유일한 곡이다. 첫머리의 나른한 선율은 바버가 전에 썼으나 출판하지 않은 관현악곡 '지평선'의 첫 일곱 마디에서 가져온 것이다. 갑자기 모든 악기가 길고 급하게 재잘대지만, 결국 오보에가 통제력을 회복해 다른 악기들이 불안정한 음형을 연주하는 가운데 홀로 주된 선율을 노래한다. 마침내 첫머리 악상이 되돌아오고, 주제와 부수 악상이 각 악기 사이를 미끄러지듯 떠돌다가 오보에가 당김음을 구사한 빠른 민속풍 주제를 제시하며 이는 곧 모든 악기로 확대된다. 첫머리 악상이 다시 선을 보인 뒤 악상은 더 활기를 띠고 음량과 격렬함을 더해가지만, 머잖아 느릿하게 이야기하는 듯한 분위기로 넘어간다. 코다에서는 주요 주제의 단편들이 만화경처럼 펼쳐지며, 전곡은 부드럽고도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로베르트 슈만 1810~1856 **피아노 오중주 E^b장조, Op.44**
Robert Schumann **Piano Quintet in E^b Major, Op.44**

1842년은 슈만에게 '실내악의 해'였다. 이 해에 슈만은 그간의 작업으로 익숙해진 현악 사중주라는 매체에 자신의 악기였던 피아노를 더해 피아노 오중주를 쓰기로 결심했다. 1악장을 여는 명랑한 악상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층 차분해진 다음에도 귓가에 맴돌 만큼 강렬한 인상을 준다. 발전부에서는 악상이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며, 재현부는 제시부와 거의 동일하다. 2악장은 일종의 장송 행진 같은 느낌을 준다. 제1바이올린이 연주하는 1주제는 신비로우면서도 황량하며, 부드러운 2주제는 먹구름 속 한 줄기 햇살 같은 인상을 준다. 스케르초 악장에서는 두 개의 트리오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서정적인 카논이고 두 번째는 한층 떠들썩한 분위기를 지닌다. 피날레 첫머리의 강력한 일격은 마치 타악기 같은 느낌을 주며, 방심하고 있던 감상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하다. 슈만은 이 악장에서 열정과 불안함, 섬세한 서정성 등을 골고루 버무려 놓았으며, 결국 이 모든 것이 탁월한 대위법을 구사한 찬란한 마무리로 끝을 맺는다.

슈베르트와 말러; 그리움 Schubert & Malher; Nostalgia

9. 9. SAT. 7:30PM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Schubert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녹턴 E^b 장조, D.897 (14분)
Notturmo for Piano Trio in E^b Major, D.897
Pf. 김혜진, Vn. 백주영, Vc. 임재성

구스타브 말러
Gustav Mah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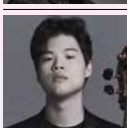
알프레드 시넷케 피아노 사중주 a단조 (20분)
Alfred Schnittke Piano Quartet in a minor
Pf. 황건영, Vn. 김재원, Va. 장은경, Vc. 임재성

INTERMISSION

프란츠 슈베르트
Franz Schubert

팔중주 F장조, D.803 (60분)
Octet in F Major, D.803
I . Adagio - Allegro
II . Adagio
III . Allegro vivace
IV . Andante
V . Menuetto; Allegretto
VI . Andante molto - Allegro
Vn1. 백주영, Vn2. 김재원, Va. 임지환, Vc. 정우찬,
Db. 임채문, Cl. 채재일, Bn. 이민호, Hn. 김홍박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황건영	· 국민일보 & 한세대 콩쿠르 전체대상, 백슈타인 & 삼익 콩쿠르, 음연 콩쿠르 1위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바이올린 백주영	· 파가니니, 시벨리우스, 인디애나폴리스, 컨엘리자베스, 서울 국제콩쿠르 등 석권 · 서울대학교 교수, 앙상블 오푸스 리더
	바이올린 김재원	·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 ·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제1악장
	비올라 장은경	· 2023 멜번 국제 챔버 콩쿠르 3위 및 Commission Prize · 리수스 콰르텟 비올리스트
	비올라 임지환	·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3위 · 이든 콰르텟 비올리스트
	첼로 임재성	·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음악콩쿠르 문화체육부장관상,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 협주곡콩쿠르 우승 · 숙명여자대학교 겸임교수, CJ나눔재단 멘토, CMS ROUND-TABLE, 첼리스트첼로앙상블, 트리오 파로스 멤버
	첼로 정우찬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컨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입상 · 이든 콰르텟 첼리스트
	더블베이스 임채문	· 독일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 준우승 · 영국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클라리넷 채재일	· 프랑스 뷔페 크람퐁(Buffet Crampon)클라리넷 아티스트, 반도린(Vandoren) 아티스트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바순 이민호	· 독일 마크노이키르헨 콩쿠르, 스위스 무리 콩쿠르 심사위원 · 수원시립교향악단 수석
	호른 김홍박	· 고잉홈 프로젝트 이사, 앙상블 오푸스, 클럽M, Korean Horn Sound 멤버 · 서울대학교 교수

PROGRAM NOTES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Franz Schubert

피아노 삼중주를 위한 녹턴 E^b장조, D.897

Notturmo for Piano Trio in E^b Major, D.897

슈베르트는 1812년, 모차르트와의 악연으로 유명한 안토니오 살리에리의 문하에 있었던 시절에도 피아노 삼중주를 쓴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단악장의 습작(D.28)은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어엿한 작품으로 보기 애매한 게 사실이다. 그가 제대로 된 피아노 삼중주를 쓰기 시작한 것은 죽기 불과 1년 전부터의 일이었다. 그가 '녹턴, D.897'을 쓴 것은 '피아노 삼중주 제1번, D.898'과 비슷한 무렵으로 추정된다. 정황상 이 곡은 'D.898'의 느린 악장으로 쓴 듯하나, 어느 시점에선 그가 착상은 버려지고 별개의 곡이 되었으며 작곡가 사후 20년이 지나서야 출판되었다.

이 곡의 풍요로운 주제는 리듬면에서 볼 때 다소 이례적이다. 두 현악기의 피치카토나 구르는 듯한 피아노 화음 둘 다 진행되다가 갑자기 멈춘다. 일설에 따르면 이 주제는 슈베르트가 잘츠부르크 동쪽으로 여행했을 때 들었던 민속 선율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더 빠르게 연주하게끔 되어 있으며 매우 밝고 풍부하다.



구스타프 말러 1860~1911

Gustav Mahler

알프레트 시닛케 피아노 사중주 a단조

Alfred Schnittke Piano Quartet in a minor

이 곡은 말러가 젊었을 때 쓴 몇 편의 실내악곡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작품이다. 나머지는 작곡가 자신이 파기해 버렸다. 말러가 죽은 지 반 세기가 넘게 지난 뒤에 그의 아내였던 알마가 자필악보를 발견함으로써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슈베르트와 (그보다는 좀 더 적게) 브람스의 영향을 보여주지만, 어느 쪽과도 그리 많이 닮지는 않았다. 전반적으로 비감에 찬 낭만적인 정서를 지닌 이 곡은 말러가 일찍부터 얼마나 숙달된 작곡 능력을 지녔는가를 잘 보여주며, 마틴 스코세지 감독의 영화 '셔터 아일랜드'에 사용되어 더욱 유명해졌다. 대개는 말러가 완성한 첫 악장만 연주하지만, 러시아 작곡가 알프레트 시닛케(1934~1998)는 말러가 남긴 24마디짜리 스케르초 스케치에 기초해 자신의 '교향곡 제5번'('합주 협주곡 제4번'으로 부르기도 한다) 2악장의 악상도 일부 첨가해 보필 완성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이 버전으로 연주한다.



프란츠 슈베르트 1797~1828

Franz Schubert

팔중주 F장조, D.803

Octet in F Major, D.803

슈베르트가 '8중주'를 쓴 것은 1824년의 일이다. 여섯 악장으로 이루어진 것이나 대체로 명량한 분위기를 띠는 것은 18세기 귀족들의 밤 여흥을 위한 음악 장르였던 디베르티멘토의 잔재라 할 수 있다. 1악장은 치밀한 짜임새가 돋보이며, 주제는 같은 작곡가의 가곡 '방랑자'(첫 번째 버전인 'D.489'와 나중 버전인 'D.493' 모두)에서 가져온 것이다. 2악장은 뱃노래와 자장가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슈베르트가 쓴 느린 악장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스러운 축에 든다. 3악장은 목가적이고 상쾌한 스케르초이며, 4악장은 슈베르트가 이전에 쓴 장슈필 <살라망카의 친구들, D.326>에서 가져온 악상을 주제로 하는 변주곡이다. 5악장은 미뉴에트인데, 슈베르트는 베토벤이 종종 그랬듯이 이 춤곡을 그것이 성행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양식화했다. 중간부인 트리오는 오스트리아 시골 춤곡인 렌틀러로 되어 있다. 6악장은 극적인 분위기를 예고하듯 장중하게 시작하지만, 악상은 곧 일변해 유쾌하고 흥미진진하게 진행된다.

정물(멈추어 있는 것들); 그래도, 삶 Still Life ; Still, life

9. 12. TUE. 7:30PM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캐롤라인 쇼

Caroline Shaw

피아노 사중주를 위한 '천 번째 오렌지' (11분) **국내초연**

'Thousandth Orange' for Piano Quartet

Pf. 황건영, Vn. 김유은, Va. 임지환, Vc. 채훈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 단조, KV.478 (25분)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KV.478

I . Allegro

II . Andante

III . Rondo. Allegro

Pf. 황건영, Vn. 김유은, Va. 임지환, Vc. 채훈선

INTERMISSION

요하네스 브람스

Johannes Brahms

피아노 사중주 제2번 A 장조, Op.26 (40분)

Piano Quartet No.2 in A Major, Op.26

I . Allegro non troppo

II . Poco adagio

III . Scherzo. Poco allegro

IV . Finale. Allegro

Pf. 이진상, Vn. 정주은, Va. 김상진, Vc. 이호찬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이진상	· '베토벤 트리오 본'의 피아니스트로 활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피아노 황건영	· 국민일보 & 한세대 콩쿠르 전체대상, 백슈타인 & 삼익 콩쿠르, 음연 콩쿠르 1위 · UNIST 대학 UPAF 교수진
	바이올린 김유은	· 델리리움 무지쿰 챔버 오케스트라 수석, 2023년 워너클래식과 음반 발매 · 무지카 안젤리카 바로크 오케스트라 상주음악가 · 세인트 매튜 오케스트라 악장(Los Angeles)
	바이올린 정주은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2위 및 청중상 · 이든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라 김상진	· 서울챔버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및 지휘자 · 연세대학교 교수
	비올라 임지환	·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3위 · 이든 콰르텟 비올리스트
	첼로 이호찬	· 앙상블 블랭크 the Artistic Committee, 책가옥 시리즈 음악감독, 아더(Ader) 첼로 콰르텟 리더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 계원예고 출강
	첼로 채훈선	· ARD 국제콩쿠르 피아노 삼중주 부문 3위 및 청중상, 현대곡상 · 발트앙상블, 룩스트리오 첼리스트

PROGRAM NOTES



캐롤라인 쇼 1982~
Caroline Shaw

피아노 사중주를 위한 '천 번째 오렌지'
'Thousandth Orange' for Piano Quartet

캐롤라인 쇼는 미국의 작곡가 겸 바이올리니스트, 성악가이다. '천 번째 오렌지'는 2018년 4월 17일에 초연한 곡으로, 작곡가 자신은 이 곡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사랑하는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와 그것들을 연주했던 기억, 나아가 일반적으로 사랑받는 기억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생각하다가 정물화의 역사 쪽으로 생각이 미쳤다. ...천 번째 오렌지를 그리거나 보거나 먹는 것 역시 맨 처음처럼 아름다울 수 있다. ...이 곡의 제목은 천 가지 오렌지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오렌지를 바라보는 천 가지 방법을 의미한다." 이 곡은 피아노의 매우 단순한, 혹은 작곡가의 말대로 '화려한 것도, 기발한 것도 없는' 화성 진행으로 시작하며, 이후에도 피아노는 처음보다는 차츰 발전해 나가지만 비교적 단순한 음형을 유지한다. 한편 현악기들은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주하다가 곡이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제대로 된 선율을 연주하는데, 이는 브람스를 비롯한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에 대한 향수 어린 경의의 표현으로 들린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1756~1791 피아노 사중주 제1번 g단조, KV.478
Wolfgang Amadeus Mozart Piano Quartet No.1 in g minor KV.478

모차르트는 통상적인 편성의 피아노 사중주를 두 곡 썼는데, 이 가운데 '제1번'은 번호가 말해주듯이 더 먼저 쓴 것으로 작곡가 자신에 따르면 1785년 10월 16일에 완성했다. 이는 출판업자 겸 작곡가였던 프란츠 안톤 호프마이스터의 위촉에 따른 것인데, 원래 세 곡 쓰기로 되어 있었지만 '제1번'이 상당히 난해했기 때문에 당시 악보 시장의 주요 구매층이었던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실패했다. 결국 호프마이스터는 계약 조건에 따라 모차르트에게 보수를 지불하고 더 작곡하지 않아도 된다고 통고했으나, 모차르트는 한 곡을 더 썼으며 이게 '제2번'이 되었다. '제1번'의 1악장에서는 극적인 강렬함과 서정적인 내향성이 대비를 이루며, 이 악장의 불안정한 분위기는 차분해 보이는 2악장에서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3악장 역시 일반적인 론도와는 달리 낙천적인 명량함보다는 조증에 가까운 면모를 보인다.



요하네스 브람스 1833~1897
Johannes Brahms

피아노 사중주 제2번 A장조, Op.26
Piano Quartet No.2 in A Major, Op.26

브람스는 이 곡을 1861년에 '피아노 사중주 제1번'과 거의 나란히 썼지만 두 곡의 성격은 매우 판이하다. '1번'은 침울한 느낌의 g단조를 주조로 하며 형식면에서 무척 자유로운 데 비해, '2번'은 밝게 빛나는 A장조로 되어 있으며 탄탄한 형식미를 보여준다. 이 곡에 대한 슈베르트의 영향은 여러 대목에서 드러나며, 1악장의 주요 주제부터가 그렇다. 이 주제는 처음에는 상냥하고 서정적인 분위기를 띠다가 곧 피아노의 강렬한 연주 덕에 단단하고 근육질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 차분하고 정감 있게 노래하는 느린 악장은 한 여성 애호가인 브람스에게 도대체 어떻게 쓸 수 있었느냐고 물었던 '지고한 아름다움을 지닌 느린 악장'의 범주에 속한다. 나긋나긋하게 시작해 곧 활기차고 풍요로운 악상을 선보이는 스케르초 악장과 브람스가 평생 애호했던 집시 음악의 분위기가 물씬한 피날레는 다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그러면서도 언제나 신선하게 들리는 브람스 음악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CLOSING CONCERT

경이로운 환상 Wondrous Fantasy

9. 13. WED. 7:30PM 예술의전당 인촌아트홀

루트비히 판 베토벤

Ludwig van Beethoven

헨델의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G 장조, wo045 (12분)

12 Variations on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in G Major, wo045

Vc. 이호찬, Pf. 원재연

폴 위앵코

Paul Wiancko

현악 사중주를 위한 '리프트' (25분) **국내초연**

'LIFT' for String Quartet

리수스 콰르텟

INTERMISSION

안토닌 드보르자크

Antonín Dvořák

'슬라보닉 춤곡' 셀렉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 (12분)

Selections of Slavonic Dances for 4 hands piano

Pf. 김혜진, 원재연

호아킨 투리나

Joaquín Turina

피아노 오중주 g단조, Op.1 (30분)

Piano Quintet in g minor Op.1

Pf. 김혜진, Vn. 김재원, 이해니, Va. 장은경, Vc. 이호찬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사정으로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PROFILE

	예술감독/피아노 김혜진	· 부조니국제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입상 ·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 미국 콜번학교 교수진
	피아노 원재연	· 제61회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준우승 및 청중상 · 동아음악콩쿠르, 칼 로버트 크라이텐 프라이즈, 페롤 콩쿠르, 룽 티보 콩쿠르 우승 및 수상
	바이올린 김재원	·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 ·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 제1악장
	바이올린 이해니	· 2023 멜번 국제 챔버 콩쿠르 3위 및 Commission Prize · 리수스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비올라 장은경	· 2023 멜번 국제 챔버 콩쿠르 3위 및 Commission Prize · 리수스 콰르텟 비올리스트
	첼로 이호찬	· 앙상블 블랭크 the Artistic Committee, 책가옥 시리즈 음악감독, 아더(Ader) 첼로 콰르텟 리더 ·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화예고, 계원예고 출강
	리수스 콰르텟	·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4중주 콩쿠르 특별상 수상 · 2023 멜번 국제 챔버 콩쿠르 3위 및 Commission Prize

PROGRAM NOTES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Ludwig van Beethoven

헨델의 주제에 의한 12개의 변주곡 G장조, WoO45

12 Variations on 'See the Conqu'ring Hero Comes' in G Major, WoO45

베토벤이 1796년에 쓴 곡으로, 주제는 헨델이 1747년에 쓴 오페라 '유다스 마카베우스' 중 '보라, 정복자 영웅이 오는 도다'의 선율에서 따온 것이다. 첫 번째 변주는 헨델의 주제 중간부에 등장하는 화음을 강조하는 수준에 그친다. 바순(원래는 첼로)은 두 번째 변주에서 처음 모습을 보이며, 피아노의 반복 음형 위에서 원 주제의 도악을 과장하면서 연주한다. 3변주 역시 도악이 두드러진다. 4변주는 단조로 연주되면서 주제 선율로 애수를 자아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베토벤은 5변주와 6변주에서 악상을 두 악기에 고르게 분할해 배분함으로써 7변주에서 등장하는 활발한 바순 악구를 예비한다. 두 번째 단조 변주인 8변주에서는 원 주제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되며, 고요한 분위기의 9변주를 거쳐 솟구치는 바순 파트를 특징으로 하는 흥분한 분위기의 10변주가 온다. 대단히 장식적이고 기교적으로 까다로운 11변주 뒤에는 원 주제의 리듬을 근본적으로 변경한 마지막 변주가 등장한다.



폴 위앵코 1983~

Paul Wiancko

현악 사중주를 위한 '리프트'

'LIFT' for String Quartet

폴 위앵코는 미국의 첼리스트 겸 작곡가이다. 5세 때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8세 때 첫 작품을 작곡했다. 2023년에는 현대음악 전문 사중주단인 크로노스 사중주단의 단원이 되었다. '리프트'는 캐러무어 음악 미술 센터가 에이저리 사중주단을 위해 위촉한 곡으로, 2016년에 완성되어 같은 해 7월 8일에 캐러무어 여름 음악제에서 초연되었으며 '하이드이 이 시대에 현악 사중주를 작곡했다면 썼을 법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작곡가 자신은 이 곡에 대해 개인적인 '기쁨의 송가이자 한 영혼의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3부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단락은 템포와 분위기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언제나 작곡가 특유의 유머감각이 깃들여 있다는 게 특징이다.



안토닌 드보르자크 1841~1904

Antonín Dvořák

'슬라브 춤곡' 셀렉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작품

Selections of Slavonic Dances for 4 hands piano

안토닌 드보르자크는 1875년 오스트리아(당시 작곡가의 조국 체코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예술가를 위한 국비 장학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당시 장학금 심사위원이었던 브람스는 드보르자크의 재능을 간파했고, 그를 자신이 거래하던 짐로크 출판사에 소개해 주었다. 짐로크는 브람스의 '헝가리 춤곡'을 염두에 두고 드보르자크에게 슬라브 느낌이 나는 피아노 연탄곡을 써달라고 의뢰했다. 드보르자크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1878년 5월에 '슬라브 춤곡집 제1번'을 썼는데 이것은 'Op. 46'으로 출판되었다. 이 춤곡집이 대성공을 거두자 짐로크는 재차 후속작을 써달라고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1886년 7월에 완성한 '슬라브 춤곡집 제2번, Op.72'이다. 둘 다 분방한 활기와 유려한 선율미를 결합한 걸작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전자는 체코 고유의 춤곡 양식에 주로 근거하며 리듬을 강조한 격렬한 곡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후자는 범슬라브적 색채가 더 강하며 악상이 한층 원숙하게 다듬어져 있다는 차이가 있다. 둘 다 각각 여덟 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공연에서는 두 춤곡집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연주한다.



호아킨 투리나 1882~1949

Joaquin Turina

피아노 오중주 g단조, Op.1

Piano Quintet in g minor Op.1

호아킨 투리나는 알베니스의 친구였으며 스페인,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의 민요와 리듬에서 주된 착상을 얻었다. '피아노 오중주'는 파리의 스콜라 칸토룸에서 뱅상 땡디의 가르침을 받던 시절인 1907년에 쓴 것으로, 투리나의 곡 가운데 처음으로 출판되어 'Op.1'이 되었다. 이 곡은 땡디와 그의 스승인 세자르 프랑크의 영향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체 4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투리나는 느린 악장과 스케르초를 이어붙이고 1악장에 느린 푸가를 두는 등 일반적인 실내악곡과는 다른 구성을 취했다. 작곡가 자신은 훗날 이 곡에 대해 자기답지 않은 곡이라고 평가절하했으나, 매우 세련된 작품임은 부정할 수 없으며 초연 역시 대성공이었다. 1악장은 그레고리오 성가에 기초한 푸가로, 주제 선율은 2악장에서도 변형된 형태로 다시 등장한다. 3악장은 프랑크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보여주며, 아름다운 안단테 선율로 시작해 스케르초와 푸가를 거쳐 첫머리 단락으로 되돌아간다. 피날레는 화려한 론도이다.

Artistic Director & Pianist HYEJIN KIM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근거로 활동 중인 피아니스트 김혜진은 독주자, 실내악 연주자, 레코딩 아티스트 그리고 교육자로서 한국 음악계를 세계에 알리며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시대 주목할 만한 연주자 중 한 명이다. 그녀는 2005년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 만 17세로 최연소 3위에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일찍이 국내에서 음연 콩쿠르, 이화경향, 한국일보, 쇼팽 콩쿠르, 대구 방송 콩쿠르 등을 석권하며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만 17세 나이에 도독하여 부조니 콩쿠르를 포함한 그 외 다수 콩쿠르(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Steinway & Sons 국제 콩쿠르, 칸투 콘체르토 국제 콩쿠르, 네덜란드 영 피아니스트 국제 콩쿠르, 토론토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한 바 있으며, 또한 외국인을 위한 장학금재단인 DAAD(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선발되며 세계무대에 입지를 굳혀 나갔다.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프랑크푸르트 방송 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등 국내외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Eliahu Inbal, Andreas Orozco-Estrada, JoAnn Falletta, 최수열, 김대진, 성시연, 장윤성 등의 지휘자들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2013년 아르메니안 필하모닉, Edauro Topchjan과 협연한 라흐마니노프 협주곡 1번과 2번으로 소니 레이블로(Sony Classical) 첫 음반을 발매하였다. 2021년 11월 그래미 최고의 앨범 후보로 오른 프로듀서인 Philip Traugott와 함께 협업한 첫 솔로 음반을 발매하였으며 다음 해 2월 Naxos 레이블과 작업한 M.Clementi의 초기 소나타들로 구성된 음반을 발매하기도 하였다.

5살에 피아노를 시작한 김혜진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를 재학하던 중 도독하여 Fabio Bidini 교수 가르침 아래 독일 한스 아이슬러 국립 음대에서 최고 연주자 과정을 최고점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미국으로 이주하여 콜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는 미국의 저명한 피아노 교육자였던 고)Bruce Sutherland가 설립한 Amron-Sutherland Fund Grant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추계예술대학 국제학부 음악과 조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살라스티나 뮤직 소사이어티 상주 피아니스트, 미국 콜번 학교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진상 Jinsang Lee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2009년 스위스 취리히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동양인 최초 우승과 동시에 대회 최초로 모든 특별상을 휩쓸며 이목을 집중시킨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세계적인 음악가로서 자리매김했다. 2005년 쾰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와 2008년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하였다. 뉘른베르크 심포니, 밤베르크 심포니, 베른 심포니,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WDR 방송 교향악단 등 세계 정상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루르 피아노 페스티벌, 루체른, 몽트뢰, 부조니 페스티벌 등 세계 유수의 음악 페스티벌에도 초청되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거쳐 쾰른 국립음대와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에서 최고 연주자과정을 마친 그는 완벽한 소리에 대한 갈증으로 테크닉션 슈테판 크뉴퍼를 사사하며 스타인웨이 오스트리아에서 피아노 테크닉을 공부하였다. 이후 스타인웨이 함부르크 공장에서 피아노 제작과정에 직접 몸담았다. 2015년부터 '베토벤 트리오 본 (Beethoven Trio Bonn)'의 피아니스트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원재연 Jae-Yeon Won 피아노 Piano



피아니스트 원재연은 이탈리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준우승 및 청중상을 함께 수상하였고, 일찍부터 이화경향음악콩쿠르, 동아음악콩쿠르 등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서 1위를 석권하였으며, 프랑스 롱티보 국제 음악 콩쿠르 입상, 스페인 페롤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독일 칼 로버트 크라이텐 프라이즈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유럽과 한국에 이름을 알렸다. 그는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신포니카 데 갈리시아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 및 서울시향, KBS 교향악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베를린 필하모닉, 본 베토벤 하우스, 프랑스 살 가보, 살 코르토, 뮌헨 헤라클레스 홀 등 유럽의 유서 깊은 장소에서 초청 리사이틀을 가졌다. 현재 Steinway Artist로 활동하고 있는 원재연은 2020년 독일 Acousence 레이블에서 첫 데뷔 앨범 <Bach to Bartók>을 발매했으며, 독일 Oehms 레이블과 함께 새로운 음반을 발매할 예정이다.

손정범 Jeung Beum Sohn 피아노 Piano



손정범은 메이저 콩쿠르 우승 시절부터 모차르트 고전주의에서 차이콥스키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독창적 해석과 다양한 색깔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손정범은 오랜 콩쿠르 도전을 마감하고 코로나를 겪고 교편을 잡으면서 피아노 역사를 다시 살피게 됐다. 작곡가(슈베르트, 슈만, 베토벤)들이 마주한 역사적 순간을 관객에 객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손정범은 정련된 작품들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미 테크닉과 해석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손정범의 에스프리가 만개한 작품 조합이다. 피아니스트 손정범은 2017년 뮌헨 ARD 콩쿠르(독일) 피아노 부문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1위에 올랐고, 해당부문 첫 한국인 우승자로 기록됐다. 2019년 프랑크푸르트 인터내셔널 저먼피아노 어워드에서 우승했다. 손정범은 파워풀하고 완벽한 테크닉에 더해 연령을 무색하게 만드는 여유로움과 자유롭게 흐르는 음악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협연(뮌헨가슈타이크)을 비롯해, 뮌헨 체임버 오케스트라와 협연했고 2023년 상반기 현재 경희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건영 Gunyoung Hwang 피아노 Piano

황건영은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예고 재학 중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에 입학하여 학사과정을 마쳤으며, 쾰른 국립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고, 최고연주자과정 중 미국 쿨번 스쿨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병행하여 졸업했다. 그는 국민일보·한세대음악콩쿠르 전체대상, 음연콩쿠르 1위, Karlrobert Kreiten Piano Competition 3위, Grand Prize Virtuoso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London 1위,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특별상 등을 수상했고, ARD 국제 음악 콩쿠르 피아노 트리오 부문 세미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 젊은이의 음악제, 스타인웨이 갤러리 파사디나 & 비버리힐즈 콘서트, 스페인 La Orqueste FIMA 협연 등 초청연주를 하였고, 예술감독 박창수의 더하우스콘서트 줄라이 페스티벌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참여하였다. 미국 쿨번 스쿨에서 전액 장학금을 받으며 아티스트 디플로마 과정을 마쳤으며 UNIST대학의 실내악 음악 축제에 교수진으로 초청된 바 있다.



백주영 Ju-Young Baek 바이올린 Violin

시벨리우스, 파가니니, 인디애나폴리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입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은 백주영은 2005년 서울대 음대 역사상 최연소 교수 임용 후 2007년 세계 최초로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12곡 전곡을 하루에 완주하는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커티스 음악원에서 학사,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석사,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백주영은 카네기홀, 링컨센터, 케네디센터, 김멜센터, 산토리홀 등 세계 주요 무대에서 연주해왔으며, 런던 필하모닉,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NHK심포니,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2020년,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앨범을, 그리고 이자이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전곡앨범을 연이어 발매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재직 중이자 앙상블 오푸스의 리더로 활동 중이다.



김유은 YuEun Gemma Kim 바이올린 Violin

2021년 미국의 “아메리칸 바흐 솔로리스트”가 뽑은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된 김유은은 예원학교, 서울예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국의 남가주 대학교에서 미도리 고토 사사로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중앙음악콩쿠르, 콜로라도 국제 콩쿠르 등 유수 콩쿨에서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즐기는 그녀는 챔버 오케스트라 ‘델리리움 무지쿰’(Delirium Musicum)의 창단 멤버이며 올해 2023년 세계 최고의 클래식 음반 레이블 워너클래식과 데뷔 앨범을 발매하였다. 음악과 여행을 접목한 프로젝트 ‘뮤지카라반’(MusiKaravan)을 기획하여 6개월간의 모험을 기록한 시리즈는 샌프란시스코의 클래식 음악 저널 ‘클래시컬 보이즈’ 선정, 관객이 뽑은 최고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또한 클래식 기타와의 듀오 유앤아이(Yu&i)의 멤버로서 미국 전역의 공연장에서 초청받고 있다. 이번 시즌 김유은은 미국 ‘무지카 안젤리카 바로크 오케스트라’의 상주음악가, 그리고 St. Matthews Orchestra의 악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며 유럽 투어도 예정되어 있다. 그녀의 유튜브채널(젬마 바이올린)의 쇼팽 야상곡 비디오는 1500만 뷰를 기록하고 있다.



김재원 Jaewon Kim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원은 16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영재 입학하여 학사 졸업 후, 파리국립고등음악원(CNSMDP) 석사 수석입학 및 최고연주자과정(DAI) 졸업과 동시에 파보예르비가 상임지휘자인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부악장으로 선발되어 2년간 활동하였고, 2022년 오케스트라 드 파리의 부악장으로 선발되어 부악장과 객원악장으로 활약하였다. 14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하여 이태리 Lipizer, 독일 클로스터 쉐탈, 홍콩 쉐필드, 오스트리아 브람스, 불가리아 소피아 비르투오조 국제콩쿠르 입상 및 특별상을 수상하였으며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파리 국립오페라 아카데미 단원 역임, 정명훈 지휘자가 창단한 원코리아 유스 오케스트라 악장,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악장으로 초대받아 연주하였고 2017 프랑스 뱅크 파퐁레어 재단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2년간 후원받았다. 현재 부산국제클래식음악제 예술부감독을 맡고 있고, 2023년부터 프랑스 ‘툴루즈 카피톨 국립 오케스트라’의 제1악장으로 활동 중이다.



이해니 Haeni Lee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이해니는 선화예술학교와 선화예술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였다. 이후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장학금을 수혜하며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Teaching Assistantship과전액장학금 후원을 받으며 박사과정을 졸업하였고 Quartet Residency로 최고연주자과정(AD)을 졸업하였다. 일찍이 음연콩쿠르, 성정콩쿠르, Enkor International Competition, Indiana Concerto Competition, University of Texas String Concerto Competition에서 입상하여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보여줬으며, Tanglewood Music Center Fellowship Program, Music Academy of the West, Pacific Music Festival에 전액장학금으로 참여하였다. 현재 리수스 콰르텟의 리더로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선화예술학교 계원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정주는 June Jeong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정주는은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에서 2위 및 청중상을 수상하며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완벽하다', '깊은 감동을 주는 노래' 등의 평을 받았으며, 중앙음악콩쿠르 및 다수의 국내 콩쿨 상위 입상 등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8년 그의 첫 국제콩쿠르인 제14회 서울국제음악콩쿠르에서 입상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하였다. 또한 금호영재콘서트,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국제아트홀 초청 독주회,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수상자로서의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협연 등 솔리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서 실내악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과정을 졸업 후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국립음대에서 Ning Feng 사사로 Master 과정에 재학중이며, 2023년 4월부터는 동 대학에서 Konzertmeister Master Solo 과정에 재학 중이다.



임동민 Dongmin Lim 바이올린 Violin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은 2022 서울국제음악콩쿠르 1위, 2022 KBS한전음악콩쿠르 대상, 2021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윤이상특별상, 2019 중앙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 국내외 콩쿠르에서 상위 입상하며 그의 실력을 입증하였다. 그는 2016년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 후 평창대관령음악제 라이징스타에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일본 이시카와 뮤직 아카데미에서 IMA음악상을 수상하며 무대에 올랐고, 2022 금호영아티스트콘서트 독주회와 국제아트홀 독주회를 비롯해 KBS교향악단, 성남시향, 수원시향, 인천시향, 군포프라임필오케스트라, 코리아콥오케스트라, KNUA심포니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는 등 연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또한 '이든 과일'의 멤버로서 실내악 연주자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임동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 졸업 후 현재 Ning Feng 사사로 베를린 한스아이스러 국립음대에 재학 중이다.



김상진 Sang-Jin Kim 비올라 Viola

동아콩쿨 역사상 최초의 비올라 우승자인 김상진은 독일 쾰른 국립 음대와 미국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후 미국의 아스펜, 독일의 라인가우, 프랑스 뮤직알프 페스티벌 등 전 세계 50여 개국 주요 도시와 페스티벌에서 연주했다. 세종 솔로이스츠와 금호현악사중주단 등을 거치며 2001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2002년 대한민국 문화홍보대사로 위촉된 그는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등 주요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의 솔리스트로 초청받았으며 비올라 독주 음반 'La Viola Romantica', 'Strings from Heaven', 'Brahms Sonatas'를 비롯한 20여장의 음반을 발매하였다. EBS라디오 '클래식 드라이브', 예술의 전당 11시 콘서트 등을 통해 방송진행자와 해설자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던 김상진은 매년 30여회 작품들이 연주되는 작곡가로, 그 외에도 방송진행자, 지휘자, 음반프로듀서와 편곡자 등 다방면에 걸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 상해국립음악원의 객원교수를 역임한 그는 2017년 4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챔버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 겸 지휘자로 취임하였고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장은경 Mary Eunkyung Chang 비올라 Viola

비올리니스트 장은경은 예원학교, 서울예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졸업 후 도미하여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석사졸업, 연주자과정을 취득했으며, 텍사스 주립대학교 오스틴에서 Quartet Residency로 최고연주자과정(AD)을 졸업했다. 세계일보 콩쿠르, 1등, 한국현악기협회, 음악교육신문사 콩쿠르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현대차 정몽구 재단의장학생 출신으로 일찍이 실력을 인정받았다. 솔리스트로서 예원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챔버 오케스트라, 인디애나대학교 Chamber orchestra, Philharmonic orchestra와 협연을 하였다. 실내악 연주자로서 금호아트홀,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장천아트홀 등에서 연주를 통하여 음악적 역량을 넓혀갔다. 현재 리수스 콰르텟, 앙상블 블루밍 멤버로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천예고에 출강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임지환 Jiwhan Lim 비올라 Viola

15세에 취미로 비올라를 시작하여 1년 후 16세가 되던 해에 비올리스트의 꿈을 꾸기 시작한 임지환은, 바로 다음 해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입학, 후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성적우수자로 입학하였으며, 현재는 쾰른 국립음대에서 Peijun Xu를 사사로 석사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최근 쾰른 국립 음악대학에서 주최된 2022 Internal Hochschulwettbewerb für Viola und Kontrabass 에서 3위에 입상하며 국제적인 가능성을 입증하였으며, 음악교육신문콩쿠르, 바로크음악콩쿠르, 음악저널콩쿠르, 성정음악콩쿠르 1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었다. 또한 2018년까지 "세이지 오자와 뮤직 아카데미 오페라 프로젝트", "오자와 인터네셔널 챔버 뮤직 아카데미", "세이지 오자와 마츠모토 페스티벌" 등 세이지 오자와 뮤직 아카데미 단원으로 아시아권의 우수 연주자들과 함께하였으며, 특히 실내악에 큰 의미를 두고 이든 콰르텟 멤버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임재성 Jaesung Lim 첼로 Cello

첼리스트 임재성은 선호예고 재학 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 입학 및 졸업 후 뮌헨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 협주곡 콩쿠르 우승,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음악콩쿠르 첼로부문 1위, 현악부문 1위와 문화체육부장관상 등을 비롯해, 런던 국제 현악 콩쿠르 특별상, 슈베르트-현대음악 국제 실내악 콩쿠르 최고작품해석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는 2018음악저널 신인음악상을 수상, 2021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강남심포니 수석을 역임하였으며, 충북도립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대전시향, 서울시향 등의 객원수석 및 한국예술종합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CJ나눔재단 멘토, CMS ROUND-TABLE, 첼리스타첼로앙상블, 트리오 파로스 멤버로 활동 중이며 숙명여대 겸임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이호찬 Hoechan Lee 첼로 Cello

첼리스트 이호찬은 예원학교, 서울예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독일 함부르크 음대 석사, 뉘른베르크 음대 박사,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전문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경기필하모닉, 세종솔리스트 소사이어티 "빨간 머리 신부 시리즈",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에서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협연과 아티스트 라운지에서 솔리스트로서의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금호영재콘서트 독주회, 10주년과 20주년 기념 페스티벌, 금호 영 아티스트 독주회 등 다수의 독주회를 개최했다. 수년 동안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부산국제음악제에 참가하였으며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개관 연주, 린덴바움 오케스트라, 김정원과 친구들 콘서트, 핀란드 난탈리 뮤직 페스티벌 스페셜 콘서트, 독일 다름슈타트, 함부르크, 라이프치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여러 도시에서 연주를 가졌다. 현재 스테이지원 소속 아티스트, 아더(Ader) 첼로 콰르텟 리더, 앙상블 블랭크의 the Artist Committee, 책가옥 음악감독 및 기획자로 활동중이며 신박듀오의 박상욱 피아니스트와 첫 데뷔 앨범이 2022년 10월 발매되었다. 예원학교, 서울예고, 선호예고, 계원예고 출강 중이다.



채훈선 Hoon Sun Chae 첼로 Cello

채훈선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에 수석 입학했으며, 이후 도독하여 베를린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예비학교 및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하였고, 뮌헨 국립음대에서 실내악과정을, 로스토크 국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을 공부했다. 2013 해 외파견음악콩쿠르 첼로 부문 1위와 전체대상(문체부장관상), 한미 콩쿠르 대상을 수상하였고, 2013 베를린 Domenico-Gabrielli 첼로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하였다. 쾰른 서독일 방송교향악단,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아카데미과정을 마쳤으며, 금호아시아나솔로이스츠 단원, 서울시향, 대전시향 객원수석을 역임했다. 현재 록스 트리오의 첼리스트로서 2018 독일 뮌헨 열린 ARD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한국인으로 구성된 팀 최초로 3위 입상 및 청중상과 현대곡상을 수상했고, 발트앙상블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우찬 Woochan Jeong 첼로 Cello

2022년 세계적인 권위의 쾰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음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우찬은, 최근 윤이상국제콩쿠르에서 2위 및 윤이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그는 이강호, Tsuyoshi Tsutsumi 사사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를 최우수로 졸업하였고, 현재 Troels Svane 교수 사사로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에서 석사과정 졸업 후 2023년 10월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UdK) 석사과정 입학 예정이다. 만 10세에 금호 영재콘서트 데뷔 후, 제8회 영 차이코프스키 국제 콩쿠르 2위를 시작으로 제7회 신한음악상 수상, 동아음악콩쿠르 2위, 중앙음악콩쿠르 1위, 프라하 봄 국제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KBS한전음악콩쿠르 은상 등 국내외 다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또한 정우찬은 솔리스트로서 KBS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니, 수원시향 등 국내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이든 콰르텟'의 멤버로 실내악에도 꾸준한 관심을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임채문 Chaemun Im 더블베이스 Double bass

2022 독일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 더블베이스 부문 한국인 최초로 준우승을 수상한 베이시스트 임채문은 현재 영국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 아시아인 최초 더블베이스 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미국 브루클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협주곡 콩쿠르, 독일 쾰른 국립음대 비올라&베이스 콩쿠르, 바덴바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가 지정하는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닉, 울산시립교향악단, 제주도립교향악단 등과 협연하였고,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국립음악학교, 독일 젊은 미술가 협회 박람회에서 초청 연주, 벨기에 앤트워프 초청 리사이틀, 헤르만 아트홀 초청기획, 2023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독주자 부문에 선정되어 성공적인 리사이틀 무대를 가졌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로서는 독일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 아카데미 단원역임,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 도이체 라디오필하모니 등에서 객원 연주를 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베를린 국립예술대학(UDK)석사과정 졸업 후 현재 쾰른 국립음대 Konzertexamen 최고연주자과정에 재학 중이다.



박예람 Yaeram Park 플루트 Flute

플루티스트 박예람은 20세에 프랑스에서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국립 아비뇽 오케스트라의 종신 수석 플루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21세에 생 모르 국립음악원(CRR De Saint-Maur)에서 플루트 정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프랑스 생 모르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14세 음악디플롬(DEM)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같은 해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하여 디플롬(DEMS)을 수석으로 졸업하였다. 이어 15세, 파리 국립고등음악원(CNSMDP)으로 진학하여 학사, 석사과정을 모두 만장일치 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하며, 클래식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였다. 10세에 영국 왕실음악원의 국제공인음악자격시험(ABRSM)의 최상위 급인 8급에 최연소 나이로 합격하였으며, 2005년부터 약 2년간 국내의 9개 주요 콩쿠르에 참가, 모두 1위하여 음악저널에 음악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유망주로 소개되었으며 2008-2011년간 퍼큐언허브, 피카디, 르파르나스 국제콩쿠르, 준국제콩쿠르, 부카레스트 국제콩쿠르 등 모두 5개의 콩쿠르에서 최연소 1위를 하였고, 이후 한국음악상 신인상(2013), 폴란드 크라쿠프 국제 플루트 콩쿠르(2014), 덴마크 칼 닐슨 국제 콩쿠르(2014), 런던 국제 음악 콩쿠르(2015) 그리고 프랑스 막상스 라뤼 국제 콩쿠르(2015) 등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에서 수상하며 실력 입증과 함께 국위선양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윤성영 Seong Young Yun 오보에 Oboe

오보이스트 윤성영은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수석으로 입학 및 졸업하였고 서울대학교 재학 중 도불하여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을 만장일치 수석 입학한 후 학사과정 및 실내악과정 졸업 및 2022년 석사과정 최고점수를 받아 마리고 악기 수여 자격을 받으며 졸업하였다. 일찍이 제11회 오사카 국제음악콩쿠르 목관 부문 1위에 입상하여 음악적 재능을 선보였으며 동아음악콩쿠르 최연소 입상하였으며, 프낙 유럽 실내악 콩쿠르 특별상, 레오폴드 벨랑 국제콩쿠르 실내악 부문 3위, 체코 프라하 국제콩쿠르 오보에 부문 한국인 최초 수상자로 공동 2위, 2021년 프랑스 사프란 재단에서 열린 오보에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음악적 입지를 확고히 하였다. 또한 독일 베를린 Kammer Hall 연주 및 서울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송년음악회 협연, 금호 영아티스트콘서트, 금호영체임버콘서트, 강동문화재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새봄 음악회 협연, 사운드 오브 윈드 목관오중주 연주, 코소보 필하모닉 초청 협연, 프랑스 뽀띠팔레 독주회, 영아티스트포럼애편제티발, 제주국제관악제, 예술의전당 여름음악 축제 등 다양한 연주에 참여했다. France Jeunes Talents Chambre Artiste 그는 현재 부페 크람퐁 오보에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페이드라루아르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주자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민호 Min Ho Lee 바순 Bassoon

바수니스트 이민호는 연세대를 졸업 후 Klaus Thunemann에게 발탁되어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 'Hanns Eisler'에서 Diplom, KW를 수료하였다. 독일 Markneukirchen 국제콩쿠르 semi-finalist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그는 교향악축제 협연 등 많은 협연과 수차례의 독주회, 특히 비발디 콘체르토 전곡연주(총37곡)라는 대장정의 업적을 남기기도 했다. 국제무대에서는 아시아더블리드협회(ADRA) 초청 독주회, International 더블리드협회(IDRS) 초청 독주회, 중국 국제 바순 페스티벌 초청 독주회와 독일, 일본, 중국, 홍콩,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를 하였고 특히 중국 Tianjin 콩쿠르, 독일 Markneukirchen 국제콩쿠르와 스위스 Muri 국제콩쿠르 등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는 현재 수원시립교향악단의 수석과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병행 중에 있다.

ARTISTS



채재일 Jerry Jae-il Chae 클라리넷 Clarinet

클라리네티스트 채재일은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대학, 대학원을 장학생으로 졸업, 리카르도 모랄레스와 박종혁, 채일희를 사사하였다. 이화경향콩쿠르 1위, 동아 음악콩쿠르 1위, 도스에르마나스 1위, 스위스 제네바 콩쿠르 특별상에 입상하였고 제네바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자크랑술로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미국 말보로 실내악 페스티벌, 금호 체임버 소사이어티, 서울 스프링 페스티벌, 대관령 국제음악제에 참여하였고,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2007, 2014, 2021), 11시 음악회, 토요 음악회의 협연자를 비롯하여 서울시향, KBS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부산시향, 수원시향, 대구시향, 광주시향, 등 국내 유수의 오케스트라는 물론, 러시아, 스페인, 미국에서도 여러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객원수석, LA오페라의 종신 수석, 스위스 베르비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7개국 순회연주,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LA필하모닉 객원단원으로 연주하였다. 서울시향 클라리넷 수석을 역임하였고 현재 뷔페 크람퐁 클라리넷과 반도린 리드 아티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김홍박 Hongpark Kim 호른 Horn

호른리스트 김홍박은 국제 호른 협회 주최 필립 파카스 어워드 2위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Federico II Di Svevia' 국제 호른 콩쿠르 3위, 일본 관악·타악 콩쿠르 호른부문 1등과 전 부문 대상, 문부대신상, 도쿄도지사상, 내각총리상을 수상하며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 실내악에 남다른 재능과 관심으로 빌라 무지카, 구스타프 말리아카데미, 'Encuentro de Musica y Academia' 등에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세계적인 거장들과 유럽 각지에서 연주했다.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에서의 연주를 비롯해 KBS교향악단, 국립 심포니, 부천시향, 부산시향, 인천시향, 오슬로 필하모닉 등 국내외 저명오케스트라들과 협연했고 아시아 국제 호른 페스티벌, 국제 호른협회 심포지움, 베이징 국제 호른 페스티벌, 평창대관령국제음악제, 서울국제음악제 등 국내외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명훈 음악감독에게 발탁되어 2007-2010 서울시향 호른 부수석으로 활동했고 런던 심포니, 예테보리 심포니, 로열 스톡홀름 필하모닉, 요미우리 니폰 심포니, 말레이시아 필하모닉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의 객원수석을 역임했다. 2012년 가을부터 2014년까지 스웨덴 왕립 오페라 제2수석으로 활동했고 2015년 노르웨이 오슬로 필하모닉 호른 수석으로 선임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위상을 높였다. 오슬로 필하모닉 수석,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를 역임한 그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 임명되어 후학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리수스 콰르텟 Risus Quartet

2021년 미국에서 열린 피쉬오프 챔버콩쿠르 (Fischhoff Chamber Music Competition)에 총 250 여명이참가한 가운데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문 우승과 함께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리수스 콰르텟은 부상으로 주어진, 같은 해 10월 미국 순회 연주와 스폰서인 Darnton & Hersh Fine Violin의 지원으로 시카고의 과르네리 홀에서 레코딩을 끝으로 북미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2022년 7월 이탈리아 투어연주로 세계적으로 활발한 음악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 4월에는 위그모어 홀 국제 현악4중주 콩쿠르 (Wigmore Hall International String Quartet Competition)에서 특별상을 수상,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열린 제 37회 옐로 스프링스 콩쿠르 (Chamber Music in Yellow Springs 37th Competition)에서 우승, 9월 ARD 국제 콩쿠르 (ARD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in Munich)에 Semi finalist까지 오르며 2020년 5월 결성 이후 이뤄낸 성과가 이들을 주목하게 만든다. 최근에는 호주 멜버른 국제 실내악 콩쿠르 현악사중주 부문에서 3위 및 특별상인 현대음악 해석상을 차지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전문 현악사중주단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되었다.



이든 콰르텟 Eden Quartet

"4명이 함께일 때 더욱 빛나는 팀", "각자의 다양한 톤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는 팀", "단순한 소리만이 아닌 그들이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연주" 등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든 콰르텟은, 2017년 봄에 팀을 창단 후 팀명을 순우리말인 '이든'으로 지었는데, 이는 '어질고 착한'이란 뜻으로, 음악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은 팀원들의 마음이 담긴 이름이다. 이든의 첫 공식연주인 원먼스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더하우스콘서트, 부산영화의전당, 삼성전자 인재개발원, 책가옥, 예술의전당 연주 등 활발히 관객들과 만나고 있으며, 또한 2019 대관령 MPyC's Pick(with 노부스 콰르텟), 2021 예술의전당 여름음악축제, 2022년 8월 롯데콘서트홀에서의 첫 단독 리사이틀을 통해 실내악 차세대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의 멤버로 처음 도전한 국제 콩쿠르인 2022 ARD 국제콩쿠르에서 준결선에 올라 주목을 받았으며, 2023 모차르트 국제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올해 4월부터는 독일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Oliver Wille 교수 사사로 실내악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SAMSUNG

Galaxy Z Flip5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